

02

제 1 발 제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상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상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 이탈리아 볼로냐

1. 이탈리아 볼로냐

1) 방문목적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 이해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적 가치 확산
- 중간지원조직 방문을 통해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습득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에 대한 모색

2) 지역특징

- 빨간도시 볼로냐 : 붉은 벽돌의 건물과 정치적 성향. 촘촘하게 들어선 낮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붉은 빛의 지붕 등 붉은 색은 볼로냐를 상징하며, 70여년이 지난 성곽 같은 건물, 또 건물과 건물로 이어지는 포르티코(회랑), 낡고 더러워도 허물고 다시 짓지 않아 고풍스런 건물 등이 많은 것이 특징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스타일의 기념물을 보유하고 있음. 동시에 붉은 색은 좌파 정치 성향을 나타냄. 1999년 중도우파 성향의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성향이 강했음. 2004년 중도좌파 성향의 세르지오 코페라티가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유럽에서 최초로 '무료대중교통' 개념의 정책을 도입 볼로냐시에서 시험한 바 있음.
- 현자들의 도시 볼로냐 : 볼로냐 대학교 영향
- 뚝보들의 도시 볼로냐 : 볼로냐의 기름진 음식 비유
- 농구도시 볼로냐

<볼로냐에 대한 통역의 설명>

- 볼로냐에는 학생들 비율이 높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진보적인 비율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강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대모를 많이 안할 때 볼로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모도 많이 하고, 그런 진보주의적 성향 때문에 중도좌파나 중도당이 시장선거에서 선택이 됩니다.
- 볼로냐대학은 1개 인데, 그 안에 많은 학부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고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업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내 중앙 안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 빠져나와서 살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볼로냐대학에서 경쟁률이 센 분야는 약학, 경영학, 법학 등이 유명합니다. 피렌체가 철학이나 법학이 유명합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친구들에게 열려있지만 졸업하는 시스템은 아주엄격해서 졸업하는 것이 대부분 대학졸업이 5년인데 평균 7-8년 정도 걸린다. 마지막에는 졸업시험 때는 졸업논문을 제출합니다. 제가 볼로냐 살면서 대학생 5명이 살았는데, 이탈리아 5명이 사는 방법은 한 아파트에서 5개방에서 각자 살면서 공동공간은 화장실과

주방으로 사용하고, 한국 돈으로 그 당시 유로로 30-50만 원 정도 됩니다. 8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더 올랐을 겁니다. 대학생들 보편적으로 강의가고, 시험기간이 되면 씻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 평소는 월-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놀고 합니다. 대마초는 이탈리아에서도 불법인데 집에서 대마초도 키우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경우 택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으면서 대화를 많이들 하는데, 대화를 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슬로우 푸드의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슬로우 푸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계기 자체가 대학생들이 모여서 현재 돌아가는 사회적 관점,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모은 다음에 그런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구체화하는 과정, 슬로우 푸드의 운동의 시초가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서비스도 이탈리아가 먼저, 협동조합 말고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것이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실질적으로 1970년 말 부터 법제화된 것은 80년대 CSS나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각자 벌써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있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필요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실체화되면서 법이나 조항들이 따라 붙게 되었다. 그런 것에서 이탈리아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바탕에는 문화의 근본적인 소스가 이탈리아에 남아있다. 르네상스, 피렌체, 비잔틴 문화, 로마문화, 그리스문화, 아랍문화 등이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사고의 유연성이 되어 그런 것에서 꼬집어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탈리아가 건축, 패션, 음악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 이탈리아 철도시스템은 운송수단의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있어 철도역이 시내와 근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로냐가 한국의 천안 같은 중부, 북부, 동부, 서부를 연결하는 곳 같은 곳입니다. 볼로냐가 운송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볼로냐가 중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운송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시의 이미지는 중공업관련 중소기업(부품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2000년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화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벤트, 볼로냐의 재발견, 한국하고 2006년 대한출판협회 통역할 때 한국의 주빈국으로 두면서 각 나라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시도하고, 어찌 보면 협동조합도 1차, 2차에서 벗어나서 3차 협동조합 즉 서비스협동조합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협동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청소협동조합 등 많은 것이 있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3차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3차 산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가족제품과 수공업은 피렌체가 더 유명합니다. 피렌체는 토스카나 주가 원재료가 좋은 소가 있습니다.

2. ERVET 리얼서비스 센터

1) 방문목적

- 지역개발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시스템을 보고자 함

2) 에르벳의 성격

- 공공부문(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과 민간부문(기업협회)의 공동참여로 1972년에 설립된 민·관지역 혁신기구(Agency). 에밀리아 로마냐 州法에 근거함

3) 에르벳 산하 리얼서비스센터

- 지역 내 중소기업형태로 존재하는 섬유/의류, 세라믹, 농기계, 신발/가죽, 건축부문의 지원조직. 에르벳이 산하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해 오던 가 분야/영역별 지원조직을 에르벳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조직임
- 1990년대에 이르면, 각 분야의 중소기업이 리얼서비스센터로부터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행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리얼서비스센터의 관리조직으로서 에르벳의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됨
- 따라서 행정과 민간 복합조직에서 행정 중심의 조직으로 성격이 개편되게 됨
- 현재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밀리아 로마냐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4) 에르벳 현재의 역할

- 주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제언: 행정과 기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서비스 제공: ITC(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문화 관광정책에 대한 지원, EU의 관련기금 Support
- 국제협력: EU 혹은 EU 이외지역국가와의 협력증진
-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Social innovation, Social Economy 관련 업무 지원

* 에르벳과 에밀리아 로마냐 주와의 관계: 3년 단위로 주정부와 협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음. 즉 3년간의 역할(계획)을 책정하고, 그 속에서 1년단위의 역할/계획을 수립함. 연간 약 7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지원규모가 삭감되고 있음

5) 주요 방문 내용

- 에르벳은 1972년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에서 시작된 에이전시임. 1972년 시작된 이 에이전시는 공공과 일반이 믹스된 형태로 공공적인 부분은 에밀리아 로마니아주, 일반적인 부분은 기업협회적인 부분이라고 함. 그 당시에 주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었고 1972년에 중앙에 법제화가 되었지만, 주법에 의해서 에르벳이 탄생하게 된 것임. 에르벳은 첫 번째 기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발전되었음. 주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와 지역에 있는 시하고 유기적관계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첫 번째 에르벳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리얼 센터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줌. 그 당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지만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그 필요성이 국내와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그 당시 분야별 섬유, 세라믹, 신발에 각 분야별 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지역에서 에르벳을 통해 로컬에 두어서 지역에서 구체화 하도록 되었다고 함. 이런 형태는 주와 일반기업들이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 에르벳은 결과적으로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가 가

지고 있는 우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에르벳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임.

- 세 번째 단계 안에서는 일반 시나 지역들이 독립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에르벳이 두 번째 기관에서 에르벳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독립하였고,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함
- 에르벳은 현재 믹스형태에서 100% 공공형태의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현재로는 공공기관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볼로냐 시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음. 현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책발전을 위한 것임.
- 지역정책발전 중에 포함된 것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들이 있는 것들, 에르벳의 성향은 기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중간역할로써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에르벳은 관광정책, 창조적 문화정책, 유럽연합관련해서 정책적인 서포터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기금 프로그램실행에도 서포터를 하고 있음. 그리고 유럽연합이 아닌 제3국에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서포터하고 있음.
- 그리고 사회적혁신(social innovation)과 복지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함.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에밀리아 로마니아와 협상하는 일을 하고 있음. 협동조합이라든지, 제3분야 즉 자원봉사와 같은 분야 대해서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 중임

6) 시사점

- 충남의 경우, 도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기업/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에르벳/리얼서비스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 현재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에르벳의 경우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한 경험이 있음. 충남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서천이나 천안, 홍성과 같은 지역을 타겟으로 하여 지역의 자산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함. 이러한 지역개발 사례를 모범사례로 확장한다면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이해시키는데 있어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임.

3. 레가쿱 협동조합연맹

1) 방문일자

- 2012년 11월 7일

2) 방문목적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확장에 있어 레가쿱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 특히 레가쿱의 연합체 구조에 대해 확인하고 옴

3) 레가쿱 현황

(2010년 기준)

| 회원조직 | 매출(유로) | 조합원수 | 직원수 |
|--------|-------------|-----------|---------|
| 15,200 | 568억(약 91조) | 9,550,699 | 485,541 |

4) 역할

- Lega coop은 협동과 상호부조(공제)의 발전, 회원조직의 경제적, 연대적인 관계를 촉진하며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의 보급을 고무함. 현재 15,000개의 회원조직 연합체로 소매유통, 건설, 농식품, 서비스, 제조업에 다수 분포, 보험-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기업체를 창출함.
- Lega coop의 핵심사업은 새로운 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도와주는 것임. 협동조합 사업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법적 설립요건들을 갖추는데 도움을 제공함.
- 모든 협동조합들이 수익의 3%를 협동기금으로 적립하면, Lega coop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협동조합 또는 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금 역할 수행
-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끔 협동조합 교육 실시(어린이 교육 포함)
- 협동조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일반기업과 차이에 관한 연구 등
- 건설 및 도시계획 : 건설협동조합들의 도시계획 전략 수립
- 사회정치 : 법적, 정치적인 압력의 행사, 정책 제언 등
- 국제교류 :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참여

5) 조직구조

- Lega coop의 조직구조는 자치-자율적인 부문조직(Sector Associations) 활동과, 광역(주) 및 기초지자체별(현, 시) Lega coop 조직활동으로 구분됨.
- 각 협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가 3년마다 개최됨. 총회에서 30~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됨. 대의원 중에 이사회가 결성되어 중요 사안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됨.
- Lega coop의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각 지역별 지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의 보호와 지원활동에 주력함.
- Lega coop은 ICA 및 ICA 유럽지역위원회이며, 2006년 11월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가장 큰 유럽의 협동조합대표조직인 '유럽협동조합'(Cooperatives Europe) 회원조직임.

6) 레가쿱 에밀리아 로마냐주

| 회원조직 | 매출(유로) | 조합원수 | 직원수 |
|-------|--------|-----------|---------|
| 1,550 | 300억 | 1,528,859 | 156,059 |

- 조합원 중 1,286,512명이 생협 조합원(에밀리아로마냐주 인구의 30%)이며, 243,347명은 다른 부문의 협동조합 조합원임.

7) 레가쿱 볼로냐

| 회원조직 | 매출(유로) | 조합원수 | 직원수 |
|------|-------------|-----------|-----|
| 300 | 32억(4조8천억원) | 1,000,000 | |

- 유럽연합 중 가장 소득이 높은 5대 경제도시 중의 하나로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라 불릴 만큼 130만 인구 중 100만명의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1/10 수준인 35,000명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음. 볼로냐에만 3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의 주요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으로 전체 협동조합의 매출규모가 연간 32억 유로 수준임.
- 볼로냐의 협동조합은 국내총생산의 30%(로마냐 주의 모든 생산경제활동의 1/3)를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생산량은 28,297유로(4,200만),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며, 실업율은 3.1%에 불과함. 인구 100명당 회사의 수가 10.34개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들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 협동조합 | 매출(유로) | 조합원수 | 직원수 |
|---|----------------------------|----------|------|--------|
| 생 협 Consumers | CONAD | 2,700백만 | | 8,030 |
| | COOP | 2,801백만 | | 12,513 |
| 농식품 Agrifood | GRAN TERREE | 221백만 | | 398 |
| | GRANDI SALUMIFICI ITALIANI | 500백만 | | 1,291 |
| | GRANAROLO | 900백만 | | 1,727 |
| | APOFRUIT | 150백만 | | 2,106 |
| | CCC | 1,250백만 | | 250 |
| 건축 C&M Construction & Manufacture | CMB | 632백만 | | 815 |
| | CMC | 700백만 | | 5,795 |
| | UNIECO | 650백만 | | 590 |
| | SACMI | 1,172백만 | | 3,658 |
| | COOPSETTE | 456백만 | | 1,034 |
|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 CADIAI | 30백만 | | 1,216 |
| 사업서비스 Services | MANUTENCOOP | 1,150백만 | | 16,500 |
| 계 | | 11,676백만 | 0 | 37,173 |

8) 질의응답 내용

<레가쿱 볼로냐의 현재 현황에 대해>

- 레가쿱은 정책제안, 정보제공, 서비스제공, 보호부분을 제공하고 국제관계 협력서비스관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에만 하위단계로 하나의 레가쿱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에밀리아 로마니아가 전쟁 후에 낙후된 지역 중 한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함. 전쟁을 겪고 가난 때문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많아지고, 연대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고된 노동자 예를 들면 건설부분에 노동자, 농업부분에 농민들,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싸게 사려고하는 입장 등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연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임

<후속세대 교육에 대해>

- 이탈리아 역시 청년실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음. 지금현실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청년실업에 관한 요구라고 함. 그래서 청년실업에 관한 실행으로 협동조합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학교나 11월에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그런 활동도 하고 있음(충남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멜라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것인데, 쿠페라테라는 웹사이트가면 청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영문으로 되어있다고 함. 그런 고등학교 가서 15~17살 아이들에게 협동조합 기업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있고, 처음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친숙한 교육 협동조합에 대해 친숙하게 하고 때로는 경영도 하게 해서 협동조합아이디어를 젊은 친구들한테 얻는 등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후속세대를 키우는 이러한 노력들은 충남의 교육청과 협조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첫 번째는 아이들 교육관련 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구조에 대해>

- 레가쿱은 분야별로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각 조직에 스며들게 되어있다고 함. (조직을 수직적인 체계로 이해하는 한국정서로서는 좀 이해가 힘든 이야기임)
- 예를 들면 협동조합 조직 체계가 국가 조직하고 연결된 협동조합도 있고, 콘프쿱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역까지 관계가 있고, 다 다양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강한데, 이 것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국가, 지역, 볼로냐)
- 협동조합의 조직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가입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음. 이는 협동조합 자체에서 권력의 집중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 짐

<새로운 사업영역>

- 레가쿱 볼로냐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주택건설협동조합을 꼽고 있음. 주택하우징이라는 부분이 자본금이 많이 모이고 그 모인 돈이 채투자, 회원으로 돼서 집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돈들이 남아있고 그 돈들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요구들. 예를 들면 주택을 조합원들이 태양열을 설치한다든지 리모델링 서비스라든지 어쨌든 그런 서비스, 자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협동조합, 하우징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적임. 주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서비스는 이민자들과 조합원들하고 집을 중간에서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장기간 렌트해서 살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든 이러한 하우징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함. 또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서비스 중 하나가 예를 들면 2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주자가 새로운 그룹의 이민자들과 서로 함께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역할자를 자처하고 있음. 이렇게 레가쿱에서는 또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써 사회적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음.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

가는 것임. 예를 들면 복지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만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택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지, 아니면 아이들 탁아소를 만든다든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또 다른 사례로 양봉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해주었음. 이는 멜리츠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관련된 식품유통회사, 즉 양봉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더 커진 회사로 변경된 모습으로 발전시킨 것임. 또한 코나피라는 업체는 생산양봉협동조합에서 유통관련해서 중앙아메리카나 제3국가와 공정무역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통에 대한 힘을 키운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케이스임. 즉 협동조합이 세계시장으로 확장하여 국제화된 케이스를 설명하였음.

4. 리자나멘토 주택협동조합

1) 연혁

- 볼로냐 지역에 있던 후작 리비오 잠베카리는 볼로냐 건축 노동자 협회 창시자로 1860년부터 노동자 협회를 약속하였다. 그 다음 해에 “남성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였고 이 단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많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협회로 발전해 나갔다. 몇 년 후, 협회는 첫 활동으로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점을 열고, 병이 든 노동자를 지원하고, 연금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은행의 대출을 지원해 주었다.
- 그 후에 노동협회는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조직을 1881년에 만들기 시작한다. 1884년 3월 23일, 건축업과 노동자주택을 위한 협동조합단체가 결성되고 첫 회장으로 프란체스코 마세이가 선출되었다. (주택협동조합 Risanamento 의 시초로 여겨짐)
-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 매입에 성공하며 1887년 잠베카리 가에 주택조합의 건물(주택)을 만들게 된다. 이 건물은 필요한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택조합 회원의 거주지로 되어있다.
-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환경조성에 맞는 건축이 실행되게 하고 계획된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다음으로 주택조합은 볼로냐 외곽지역의 거주지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빈공터와 텃밭으로 사용한 지역에 516개의 아파트를 만들어 새로운 주택지역을 만들어 낸다.
- 파시즘 시대에서도 주택조합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부동산은 현존하는 건물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 128년이 지나면서 주택조합은 초창기의 미션을 잃지 않고 엄격하게 초심을 지켜왔고 두 번의 세계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손해를 경험하면서도 조합의 유산은 계속 증가해 나간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법규를 따르면서 유산은 2,223개의 주택으로 늘어나고 109개의 지방 상점, 416개의 자동차 정비소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유산은 정부의 부동산법, 자유 시장에서의 규범 준수 등 청렴한 방법을 통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다.

- 주택조합이 성공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술적이며 재정적으로 현재의 거대한 유산을 최상의 관리와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는 조합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끌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주택 건축 계획에 협동하여 참여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성공의 비결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초대의 설립 때부터 이어 받아 주택조합이 항상 조합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잃지 않은 것이다.

2) 조직구조

- 15명의 상임위원이 운영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 조합원은 주택을 임대받은 2,223명과 임대받지 못한 6,972명으로 구성

3) 운영

- 볼로냐시의 초기 출자금과 조합원 투자로 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기금운영
- 초기에 볼로냐시에서 토지를 제공
- 임대받은 주택은 임대인이 사망시까지 임대되며, 조합원의 자격은 가족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연간 대략 100채의 아파트가 재배정
- 조합가입 순서에 따라 주택이 배정되며, 10년 단위로 5~7% 정도의 임차료 상승
- 매년 80~90가구 정도 주택이 보급되며 입주자의 60%는 노년층에 해당
- 조합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
- 현재 2,223개의 주택(총 연면적 140,000㎡), 109개의 상가, 416개의 자동차 정비소 운영
- 월세수입 700만 유로인 반면, 지출은 600만 유로로 100만유로가 적립
- 2003년부터 10년 마다 5%~7%의 월세가 인상됨

| 지역 | 볼로냐 일반 임대료 | 리사나멘토 임대료 (Corrisposta) |
|------|------------|----------------------------|
| 다운타운 | 576유로/월 | 361유로/월 |
| 중간지역 | 532유로/월 | 278유로/월 |
| 외곽 | 501유로/월 | 256유로/월 |

4) 2010년 재정관련 수치들(백만 유로)

- 수입 : 15.35
- 운영비용 : 9.14
- 영업이익(세전) : 6.21
- 순익 : 3.76

5)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만족할 수 없는 부분, 문제점들은 (2200 여개의 아파트들이 (리사나멘토의 자본금이기도 하구요)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낮은 임대료(코리스포스타)를

책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러한 구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리사나멘토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만약에 당신이 100이라는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득상승률이 5%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달에 105유로를 받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 임대료에 대한 실제적인 시장 소득률보다 임대소득률을 적어도 같게 한다거나 (임대료의 상승률도 같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낮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임금상승률보다도 보편적으로는 더 높은 임대료 안에서 가격의 상승률을 적용한다던지 하는데, 리사나멘토는 같거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자본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2,300여개에 해당하는 현재의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이 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들에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의 폭이 좁아져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2,300여명의 임차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료) 받지 않은 조합원이 7000여명으로 파악 되어 있는데,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이중조합원(이미 임대를 받은 사람의 자녀조합원)이 아닌 순수 집을 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니 2,223명에 해당합니다. 2000여 명 정도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2,000개의 또 다른 집이 필요하고, 토탈 4,000개의 집이 있어야 우리 조합원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개의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탈리아의 땅은 작고 지대가 비쌉니다.
- 이렇게 첫 번째는 지대의 문제, 두 번째는 투자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은행 대출금, 여유분에 대한 문제의 한계, 순환되어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문제, 2,000개의 건물을 짓는 데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시사점

- 레가쿱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콘프쿱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표현하면서 현재는 빨간색도 하얀색도 아닌 핑크색 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130여년간 원칙스러움을 지켜온 조직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협동조합 운동이 점점 되물림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음. 거리에서 8,90년대를 보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대와 스펙 쌓기를 통한 취업으로의 올인을 하고 있는 현재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였음.
- 리사나멘토라는 주택협동조합 역시 기본 토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부와 지지로 이뤄진 것임. 주택가격의 많은 부분을 토지가 차지하게 되는데 리사나멘토는 이 토지를 귀족 또는 지자체로부터 불하받거나 장기무상임대를 받아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음. 주택의 해결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고 투기와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와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 있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것임. 토지의 공개념화화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급진스러운 것인지 고민이 됨.

- 9천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을까 하는 우문을 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이 도시는 안 하던 것을 하기위해 사람을 조직하고 학습시키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두 번의 전쟁과 사회주의 정권을 경험한 이들은 협동과 합의라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한 것임

■ 이탈리아 트렌토

1. 이탈리아 트렌토

1) 방문목적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 이해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적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에 대한 모색
- 충남 사회적경제 연합체(네트워크) 방향 모색

2) 지역특징

- 트렌토 지역은 이탈리아 최북단에 있는 인구 50만의 작은 州이다. 이탈리아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 70%가 해발 1천m 이상, 75%가 산림인 알프스산맥 끝자락에 위치한다. 지리적 악조건 속에서도 자발적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지방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의 대부분은 농지이며 공장들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장이 대부분이다. 지역 내에 3개의 언어(이탈리아어, 독일어,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전 세계 60개국에서 3만 3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나 조화롭게 살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민자들과 빈민자들의 거주지인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트렌토에는 그러한 슬럼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흥미로운 점은 트렌토의 성장이 외부자본의 의존하지 않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적 생산, 가공이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협동조합방식의 소비와 금융이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아내고 있다.
- 트렌토 연맹은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의 가치인 Persona(사람), Economia(경제적 가치), Responsabile(책임감), Solidale(연대), Operosa(근면성), Non Speculativa(비영리), Etica(윤리)를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으며, 모든 협동조합의 매출액의 3%는 협동조합 연구 등 가치적인 것에만 투자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2. SAIT 유통협동조합

1) 방문목적

- 유통협동조합 연맹이 어떠한 구조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봄
- 유통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봄
- 유통협동조합 내 조합원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봄

2) 현황

- 1899년 11월 23일 설립자인 Emanuele Lanzerotti에 의해 지역 사회의 상호 지원의 역할을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트렌토 지역의 협동조합 상호간의 공동 구매 및 공동 판매를 목적으로 생겨남
- 1899년부터~1970년까지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 1945년~1970년의 시기에는 식품 및 가공분야를 비롯한 생산 제품이 SAIT의 브랜드로 제조되고 소매점의 네트워크를 구성함. 1971년 총회를 통해 현대적이고 효율화된 유통시설을 갖추고 매집과 유통하는 것과 함께 상품의 진열, 매장위치, 물류시스템, 정보관리, 마케팅 등을 산하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1993년 사이트가 소속된 상위연맹인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은 고유한 브랜드 및 독점적인 마케팅을 인정받고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REGA)에 가입함

3) 목적

- SAIT는 회원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협동조합 운동은 지역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며 조합원에 대한 정직과 정보공개 품질에 대한 약속 및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여 운영되고 있음

4) 컨소시엄으로서의 SAIT의 핵심 역할

- 각 매장에 대한 상품 제공: 전체 사업 중 그 비중이 점점 감소
- 소비자 교육
-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유통망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판매장에 대한 지원
- 새로운 판매장 개설
- 기존 판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5) SAIT의 강점

- 다양하고 많은 회원들이 존재함. 외부와 단절된 지역적 혹은 지리적 특성이 있음(트렌토 지역 자체의 강점)

6) 주요 방문내용

<사이트 현황에 대한 설명>

- 현재 사이트는 300개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임. 1899년에 사이트가 탄생하고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30개의 판매점으로 유통판매점으로 시작해서 현재로는 300개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고 함. 300개의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은 일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식품 다양한 품목들을 전부다 취급하고 있음. 우리가 설명을 받은 장소는 201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고 이곳에서 원스탑 원서비스 하나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공산품 채소 고기류 등등의 창고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 지금 18개의 직판매점을 구성되어 있고 300개의 판매점이 있는데 그 중에 18개는 여기 사이트에서 직판매점이 있고 300개의 판매점의 장들은 위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각 뽑히게 된 사람들이 판매점의 점장으로 있게 된다고 함. 현재 700명의 직원들이 있고 사이트에는 300명은 판매망과 관련된 직원과 그 외적인 직원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 그 남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조직형태에 대한 이해>

- 300개의 판매점 안에 106개의 꿈 매장이 존재함. 이는 협동조합 단체를 뜻함.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을 결정할 때 이 자리에서 15명의 위원 대위원, 106개의 가맹 꾸베라디아 소찰레 대한 사회협동조합 디렉터들 및 그 하위의 300개의 매장 지점들의 점주 그렇게 해서 300개의 뿐더 판매점 106개의 협동조합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대 위원 15명 그래서 여기는 15명의 대위원이 모여서 결정 의회의 결정이나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함
- (사이트의 역할로) 상품 제공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판매점에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함. 대신 소비교육이라던지 아니면 경쟁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다른 큰 대형 유통망 하고의 관련되어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세운다던지 그런 쪽으로 지금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음. 어시스트 역할도 수행하고 때로는 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판매점을 여는데 도움을 주거나 기존에 있는 판매점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이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이트의 역할로 이야기 되고 있음

<협동조합으로서의 의미>

- 이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협동조합이 왜 존재하냐고 묻자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조그마한 300명이 사는 마을에도 협동조합 소매점이 있다고 강조함. 이것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이렇게 소규모의 마을에도 협동조합은 들어가고 이들의 적자는 협동조합 연합체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설명함
- 또한 협동조합의 강점에 대해서도 설명함. 사이트의 강점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 어찌보면 강점이고 두 번째에는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우리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 있는 거 세

번째로는 지역적인 다른 데가 안 들어 올 수 있는 제한적인 협소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임. 한편으로는 까르푸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고 강조. 왜냐하면 작은 소매점들을 없애고 하나의 중심으로 만들자니까 노인들이 물건을 사기위해 50-60km 와야 하고 먼 거리로 와야했기 때문임.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협동조합형 직영점 소매점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7) 시사점

- 우리의 경우, 영세한 개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한 유통 조합을 만들 수는 없을까? 현재 사회적기업통합지원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작업을 기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경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 추석맞이 상품 기획전을 한 적이 있음
- 품앗이 생협에 대한 역할 강화. 유통협동조합 연맹까지는 아직 무리겠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보내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충남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고민을 해 나가야 함

3. OECD LEED

1) 방문목적

- OECD 다른 센터에 비해 트렌토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살펴봄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알아봄
-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봄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떠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2) 센터의 목표

-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 권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교연구와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지역수준에서 공공정책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
- 전세계에 걸쳐 지역경제 및 고용개발에 혁신을 촉진.
- OECD 회원 및 비OECD 회원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경제 및 고용 개발 전략의 평가 및 능력 개발.
- 정책 입안자, 지역 개발 실무자와 과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문 지식과 OECD 회원 및 비회원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3) 센터의 활동

- 확인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OECD의 지도하에 학습을 통한 지역개발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 그들은 이러한 이론 강좌, 그룹작업 및 워크숍, 연구를 통하여 선택한 경제 및 정부 관계

자들과의 회의 등의 방법,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함.

- 세미나는 15명~6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1일~5일간 지속 할 수 있음. 그들은 참여국가 또는 이탈리아에서 OECD 트렌토(Trento) 센터에서 개최 할 수 있음.
- 트렌토(Trento) 센터는 7월의 마지막 둘째 주에 트렌토(Trento)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OECD LEED 프로그램의 검토 프레임 워크 내에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정책평가, 풍습 및 정책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통해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함.
- 보고서를 준비하는 각 참여 국가나 지역, 이에 대한 1)배경분석 및 현장작업 임무에 따라 국제적인 좋은 관습 비교, 2)OECD 국가의 모델을 학습, 3)현재의 정책접근 방식의 강점과 약점의 분석 4)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세부정책과 권고사항. 검토는 파트너 기관과의 합의 세미나 및 회의의 수에 따라 6-9개월에서 수행됨.
-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구성된 워크숍 및 컨퍼런스에서는 모범 사례의 교류를 촉진, 지역개발과 고용정책 및 전략 공유.
- 연구는 OECD LEED 프로그램의 연구 프레임 워크의 트렌토(Trento)센터 양식에 의해 수행.
- 지역개발과 고용정책 및 전략에 대한 지식과 비교를 촉진.

4) 주요 방문내용

<사이트 현황 확인>

- OECD는 지역발전 관련된 센터이기도 하고, 트렌토의 조직이 아닌 국제조직으로서 34개국에 있고 한국에도 있다. 파리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 2,500명 직원이 있고, 4개의 외부 센터가 있음. (워싱턴, 도쿄, 베를린, 멕시코에 각 하나). 기관조직하고의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쪽에 놓여있는데 유일하게 트렌토라는 도시에 한 개의 센터가 빠져나와 존재함.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앞에서 (말한) LEED프로그램이란 것은 지역경제, 고용발전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이라고 함.
- 이 OECD는 11개의 파트로 조직되어 있음. 경영, 환경, 과학 등의 부분임. 분야별로 사람들이 지역발전, 중소기업들에 대한 발전연구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트렌토라는 곳이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음. 그 안에서 다섯 개의 분야로 또 집중되어지는 파트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창조적사회경제라는 분야, 중소기업발전분야, 관광지속분야, 거버넌스 분야임.
- 트렌토에서 하는 일은, 파리하고 공동작업을 하는데 OECD의 클래식한 부분, 분석적인 부분이라고 함. 예컨대 책-사회경제에 관한 자료- 분석 등이다. 또 엠마 박사가 제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에 review(분석자료 제공)를 하는 일도 하고 있음.

- capacity building(역량강화)-트렌토에서 하는 작업은 공공과 협회나, 일반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관계적인 부분에서 트렌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료를 제3자에 제공한다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예로서 트렌토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30~35의 그룹이 이곳에 오게 된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현장담당자 또는 전문가일수도 있다. 3~5일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옥스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옥스가 가지고 있던 경험적인 데이터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하기도 함.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본처럼 ‘이것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해결을 찾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함. 그래서 그 논의들에 대한 테마들은 결과적으로 지역발전 스킬에 대한 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등으로, 앞서 말했던 섹터 안에 있는 세부 테마들이 논의되게 되는 것임. (충남에서도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특히 사회적경제의 후속세대나 활동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트렌토 모델의 전파>

- 트렌토모델을 전파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트렌토 모델이라는게 전체를 옮겨서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복합적인 예로서 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예를 들면 정책, 이노베이션 정책분야 아니면 사회 정책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트렌토를 벤치마킹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함. ‘통째로 트렌토를 옮겨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트렌토를 벤치마킹 하시는 것을 권하는 것임. 세부적인 분야들이 있다. 이 센터에서도 이태리 안에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이 에밀리아 로마냐하고 트렌토라고 이야기 함. 이렇게 큰 틀에서의 모델을 두 개로 바라보고 있음. 협동조합은 큰 틀에서는 같으나, 조금 다른 부분들의 성향에 대한 모델로서 이야기 하는 것임. 예컨대 남아메리카쪽에는 트렌토의 협동조합모델을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 분야 쪽에 소개하고 있다고 함.

<지역개발과 사회적경제>

- 다음으로 지역개발이 OECD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경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많은 대안 중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하였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응답함. 절대적이라고 쓸 수는 없고 역사적인 것이나 근원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렌토의 경우 이런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경제모델들이 결과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로 가야한다고 본다 고 함. 즉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 시스템도 기존의 경제체제 내에서 잘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음. 이는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로 변형하고 이행시킬 수 있는 하나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세계 금융위기 이후 LEED의 역할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함. 이에 대해서는 OECD가 변화하고 있다고 응답함. 어쨌든 이러한 트렌드-자본주의 문제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들로 인한 요구에 의해 OECD의 목적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4.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

1) 방문목적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에 대해 벤치마킹
- 협동조합 지원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탐색

2) 현황

- 1870년~ 1888년 사이 약 2만 4천명이 가난을 피해 트렌토 지방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함. 이에 지역 경제는 많이 힘들어졌고 이를 지켜 본 DON LORENZO GUETTI(신부)가 목화 생산자와 함께 1890년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함.
- 1892년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창립하게 된 것임. 1895년에는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이 창립하였음

3) 연혁

- 1870년과 1888년 사이 2만4천명이 트렌토에서 미국으로 가난을 피해 이주
- 1890년 ~ 1892년 소비자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 설립
- 1890년 ~ 1898년 약 20,000 명의 회원과 170 개 이상의 협동조합
- 1895년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창립
- 1899년 사이트 창립(컨소시엄을 통한 유통협동조합)
- 2008년 현재 23만5천명의 회원과 526개의 협동조합, 21개의 사회연맹이 있음

4) 주요 방문내용

<트렌토의 상황>

- 다음과 같이 트렌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줌. 현재의 트렌토의 상황입니다. 52만의 인

구에 270개의 소규모의 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트렌토는 매우 자그마합니다. 그래서 이 태리 전국지역의 2%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의 70%이상이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점으로는 네 개의 언어를 씁니다. 이러한 풍성한 문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연결시켜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중요한 균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하게도 다른 어떠한 힘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입니다. 트렌토도(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는 자립경제를 이룬 도입니다. 부가세의 95% 정도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트렌토에 머물게 됩니다. 농업, 교육, 협동조합 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질문들 중에 자기가 생각할때는 핵심은 저희들의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다양한 문화들이 섞였습니다. 중세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트렌토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 성향이 시작됩니다. 사회와 사회, 사회와 단체, 여러 것들이 하나의 연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의 현황>

- 542개의 협동조합기업과 16개의 컨소시엄이 존재함. 542개는 첫 번째 레벨의 협동조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임. 협동조합 안에 몸담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두 번째 레벨의 컨소시엄이 열여섯개가 존재함. 그리고 협동조합 연맹에 18,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다고 함. 트렌토연맹은 ICA에 소속되어있고 협동조합의 7대가치를 잘 지키고 있음.